

# 국내 놀이치료연구 동향

: 놀이치료 관련 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1997-2003)

##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s of Play therapy

박수영 · 이재연\*

극동상담심리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Park, Soo Young · Lee, Jae yeon  
Geukdong Counseling Psychology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for a 7-year period (1997-2003) in th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and The Journal of Play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Children). Specifically, we analyzed a total of 156 articles for research contents, instruments, subjects,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and refer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al areas of research activity and publication were specific theoretical review, personality, and adjustment research. Most outcomes, processes, and outcome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a form of case study. Second, typical samples contained 4 to 6 year old children or elementary schoolers. A lot of them were counseling center clients or normally adapted children. Third, 37% of the articles used ANOVA-related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and 35% of them us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Lastly, many articles averagely cited foreign references written 11 years prior to domestic references.

Key Words : analysis of research, content analysis, play therapy

### I. 서론

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동기를 갖는 즐거운 활동이자 체험 학습이다. 놀이치료란 이러한 놀이의 속성을 심리치료의 도구로 삼고, 심리·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놀이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덩스를 통해 놀이치료가 널리 소개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본격적인 아동상담, 놀이치료의 욕구가 확산되면서 놀이치료실, 아동상담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더불어 1970년대 초반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에서의 놀이치료 교육을 필두로 하여 아동상담가, 놀이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많은 아동상담가 및 놀이치료사들이 양성 배출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박란주

(1992)의 연구를 비롯하여 놀이치료에 대한 연구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과 98년 사이 한국놀이치료 학회와 한국 아동심리재활학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놀이치료 연구들이 집적되기에 이르렀다. 두 학회를 주축으로 하여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놀이치료 연구가 다소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연구물들의 꾸준한 증가는 놀이치료연구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경험적 검증의 필요성을 한층 깊이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Brown(1969)이 "각 학문이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켜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듯이 학문의 역사적 깊이를 떠나 체계적인 틀을 통해 현 지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여 스스로 다듬고 보완해 나갈 때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놀이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 Corresponding author: Lee, Jae yeon  
E-mail: jyilee@sookmyung.ac.kr

되는 것은 물론 놀이치료 실시 기관과 놀이치료사 배출 통로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학문적 재검토와 체계 확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 하에 이미 정윤경(2001)은 놀이치료 연구동향에 대해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국외 놀이치료 연구의 동향과 비교하여 국내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가 크며, 분석 기준에 따른 연구물의 빈도수만을 제시하지 않고 가능한 연구물의 내용까지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깊이 있는 분석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부터 2000년 사이 국내 연구가 53편에 불과하여 국내 놀이치료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점, 연구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는 기준이 대상과 주제(내용)에 한정되어 있고 다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분석 기준에서 제외되는 연구물 수가 많고, 분석이 중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연구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조성호(2001)가 언급했듯이 각 학문의 현 상태는 해당 학문의 발전과 성숙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학회지에 가장 잘 반영된다. 정윤경의 분석 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내에서 놀이치료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놀이치료 학회지가 발간된 무렵과 때를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놀이치료학회지인 한국놀이치료학회의 『놀이치료연구』와 동일 제목의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에서 발간하는 『놀이치료연구』의 연구물 총 156편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 틀을 적용하여 국내 놀이치료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각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물이 얼마나 다양한 내용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된 측정도구, 피험자, 통계분석방법의 그리고 참고문헌과 같이 논문의 주요 구성요소의 특징들을 기술하고 그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놀이치료 연구의 취약한 부분과 불균형한 부분을 조명하며 나아가 이론적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관련 학회지인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놀이치료연구”와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에서 발간하는 “놀이치료연구”에 게재된 논문 156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놀이치료연구”는 98년 창간호(1권)부터 2003년 11월(6권 2호)까지 총 10권에 수록된 논문 63편을 모두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의 “놀이치료연구”는 97년 창간호(1권)부터 2003년 12월(7권 2호)까지 총 13권에 수록된 논문 100편 중 외국 저자의 논문 번역본을 제외한 93편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126편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 2. 평정자

본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생들(평균 3학기)과 1명의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 소지자가 평정자로 참가하였다.

### 3. 평정절차

평정 절차는 3단계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첫째는 평정자 훈련 단계로서, 평정자들은 연구자가 작성한 “계제 논문 평정 지침서”를 제시받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평정 기준과 지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두 번째는 예비조사단계로서, 전체 논문의 절반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4명의 평정자를 두 명씩 두 조로 나누고 무작위로 선정한 논문을 두 조에 절반씩 나누어주었다. 각 조의 두 평정자는 할당된 논문을 각자 한 번씩 모두 평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한 논문을 두 평정자가 평정하게 된 셈이다. 예비조사로 실시한 평정결과 중 불일치가 높은 항목에 대해 본 연구의 연구자와 박사학위 소지자인 평정자가 논의를 거쳐 평정기준을 보다 정교화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평정기준에 대해 다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4명의 평정자를 두 조로 나누어 전체 논문을 두 번씩 평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평정자간에 불일치가 보인 항목에 대해 1명의 박사과정 평정자와 연구자가 의논하여 평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험수와 같은

특별기고나 외국 저자의 논문을 번역하여 실은 논문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4. 평정도구

##### 1) 학회지 게재논문 평정 지침서

학회지 게재논문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성호(2003)가 작성한 “학회지 게재논문 평정 지침서”를 수정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각각의 평정 및 평가 항목별 분류 유목, 평정 평가시 주요한 기준과 지침, 그리고 주요 용어들에 대한 해설 등이 담겨 있다.

평정 지침서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영역은 논문의 제목과 연도 및 저자와 관련된 논문의 기초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연구 내용의 유형을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며, 세 번째 영역에는 각 논문에 사용된 측정 도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였다. 네 번째로 피험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다섯 번째에는 논문에 제시된 통계분석 방법을, 마지막 여섯 번째 영역에는 참고문헌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 ① 논문 기초사항 기록

논문 제목과 발간연도, 저자 및 저자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 ② 연구내용 분류

Buboltz, Miller 및 Williams(1999)가 개발한 분류 유목을 기초로 하여 조성호(2003)가 수정 보완한 분류기준을 놀이치료 연구 실정에 맞게 다시 재수정 보완하였다. Buboltz의 분류 유목은 각 논문의 연구 내용을 상호 배타적인 14개 유목들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인데 조성호(2003)는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수민족연구 유목과 기타 유목 2개를 제외하고, 학업성취연구 유목과 직업행동연구 유목을 통합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와 조사 연구 유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총 12가지 유목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에 한하여 내용분류를 중복 평가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을 검토한 바, 사례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상호 배타적으로 사례연구로만 단순 분류할 경우 연구내용의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Buboltz 등(1999)의 정의와 기준대로 사례 그 자체의 독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일 경우 사례연구로 단일 표기하였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사례 연구 내에서 상담 성과와 상담 과정, 과정 및 평가 등을 중복 표기하였다.

Buboltz(1999)와 조성호(2003)의 유목별 정의와 분류기준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유목의 정의 및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상담성과연구 : 상담이나 놀이치료 및 특정한 개입 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해당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사례 자체의 독특성을 기술하는 것보다 놀이치료 및 상담효과에 비중을 두고 사전 사후 검사 혹은 보호자나 제3자의 보고를 통해 변화 여부가 제시된 경우는 사례연구와 상담성과 연구로 중복 표기하였다.
- \* 상담과정연구 : 상담성과에 대한 자료 없이 놀이치료 및 상담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제시·분석된 연구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놀이치료 및 상담회기를 서술한 경우는 과정연구로 분류하지 않되 특별히 개입과정을 구조화한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사례연구와 상담과정 연구로 중복 표기하였다.
- \*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 놀이치료 및 상담과정과 성과를 함께 연계시키는 연구로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중 구조화된 놀이치료나 상담의 개입 과정 및 개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제시한 연구, 혹은 소집단 사례에 대한 프로그램 과정 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대해서는 사례연구와 상담과정 및 성과 연구로 중복 표기하였다.
- \*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연구 : 놀이치료사 및 아동상담자 훈련 및 교육,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 놀이치료사나 아동상담자의 발달 및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 \*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 및 일반인들의 지각/태도연구 : 놀이치료나 아동상담자 및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대, 지각 등을 다룬 연구가 해당된다.
- \* 성격특성 및 적응연구 : 상담기관 내담아동이나 양육자, 병원 내담 아동이나 양육자, 특수 집단(비행청소년, 학대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및 일반인들의 성격 및 심리특성, 성장 및 발달, 스트레스, 적응 등에 관한 연구가 해당된다.
- \* 진로 및 적성연구 : 학업성취, 진로, 적성 등에 관한 연구가 해당된다.
- \*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 심리측정 도구나 발달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과 타당화에 일차적인 초점이 두어지는 연구가 해당된다.
- \* 연구방법론연구 :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 연구에 있어

서 새롭게나 독창적인 방법론이나 통계분석 방법 또는 유용한 분석 기법들을 다루는 연구가 해당된다.

- \* 특정 주제연구 및 개관연구 : 놀이치료나 아동상담 및 아동 발달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구찰하거나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집약·분석·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나 아동상담 모형의 개발이나 이론적 고찰, 탐색적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 \* 이론개발연구 : 논문의 주요 관심이 아동상담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 틀을 개발하거나 제시하는데 일차적으로 초점 맞춰진 연구가 해당된다. 이론개발연구에서도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한 개관이 행해질 수 있으나, 단순한 기존 연구결과들의 집약·정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이나 이론, 개념 틀에 대한 제시가 반드시 부가되어야 한다.
- \* 사례연구 및 조사연구 : 단일 및 소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나,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과 관련된 중요한 조사 자료를 제시한 연구가 해당된다. 사례연구는 놀이치료 및 상담사례 자체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사례에 대한 기술적 자료의 제시 자체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이 유목에 단독 분류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및 소사례 연구 중에서도 사례 자체의 독특성 보다 놀이치료나 상담의 개입효과 및 과정에 대한 제시가 일차적 목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례연구와 상담성과, 상담과정, 상담과정 및 성과 연구로 중복 표기하였다.

### ③ 측정도구 평가

논문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수, 형식, 심리측정 정보 제시 형태를 평가하게 하였다. 측정 도구는 총 몇 가지가 사용되었으며 각 도구별 형식은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례연구 중 내담자의 진단분류를 위해 제시한 심리평가 자료는 연구를 위해 실시한 심리측정이 아니므로 측정도구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심리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측정도구로 포함시켰다.

심리측정 정보 제시 형태와 관련해서는 각 논문들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요인분석, 및 준거관련 타당도(예를 들어 공존타당도, 예언타당도 등)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④ 피험자 관련 정보 평가

각 논문에 포함된 피험자의 수, 성별, 연령에 관한 사

항을 확인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연령 형태는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 관련 연구임을 고려하여 만 0-3세, 만4-6세,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지위 특성에 대해서도 확인 및 기록하게 하였는데 이는 논문에 포함된 피험자들이 일반피험자,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 기관 내담자, 병원 내원자, 놀이치료사 및 아동상담자, 비행청소년, 기타(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 선발 정보(예를 들어 피험자를 선발한 지역, 기관, 대상에 대한 정보 제시여부와 선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는데, 논문의 독자들이 논문에 제시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피험자 선발과정 및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지, 아니면 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지 등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게 하였다.

### ⑤ 통계분석방법 유형 기록

각 논문에 적용된 통계분석 방법의 유형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유형구분은 변량분석계열 분석방법(예를 들어 t-검증, 변량분석, 다변량분석 등), 회귀분석계열분석방법(예를 들어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함수분석, 다변인간 인과관계분석(예를 들어 경로분석, 공변량구조분석, LISREL/AMOS 등 적용), 비모수적 분석(예를 들어  $\chi^2$ 검증 등)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⑥ 참고문헌 관련 사항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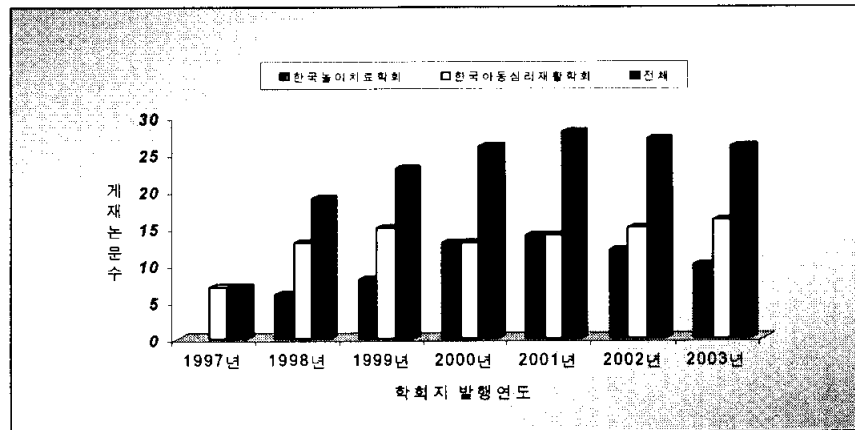
각 논문에서 인용된 국내 및 외국 참고문헌들의 수, 국내 및 외국 참고문헌들의 평균 발간 연도 등을 계산하고 각 연구들과 참고문헌의 평균 연도들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계산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III 결과 해석

### 1. 연도별 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결과

#### 1) 연도별 학회지 게재논문 수

한국놀이치료학회의 학회지는 1998년에 창간호, 1999년 2권에 이어 그 이듬해부터 매년 두 번씩 발간되었으



[그림 1] 연도별 학회지 게재논문 수의 변화 추이

<표 1> 연도별 학회지 게재논문 수

연도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전체	백분위
1997	-	7	7	4.5
1998	6	13	19	12.2
1999	8	15	23	14.7
2000	13	16	26	16.7
2001	14	14	28	17.9
2002	12	15	27	17.3
2003	10	16	26	16.7
합계	63	93	156	100.0

<표 2> 연구자 지위특성별 빈도수(백분위)

연구자	주연구자	공동연구자	전체
대학교수	67(42.9%)	46(49.5%)	113(45.5%)
시간제강사	16(10.3%)	8(8.6%)	24(9.6%)
석사과정대학원생	25(16%)	6(6.5%)	31(12.4%)
박사과정대학원생	8(5.1%)	5(5.4%)	13(5.2%)
기타(치료사, 교사)	40(25.7%)	28(30%)	68(27.3%)
합계	156(100%)	93(100%)	249(100%)

1) 2인의 공동연구자가 포함된 연구 2편은 제외시킴.

며, 1998년 창간호부터 2003년 6권 2호까지 총 6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의 학회지는 1997년 창간호에 이어 1998년부터 매년 두 번씩 발간되어 2003년 7권 2호까지 총 10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2) 연구자 지위특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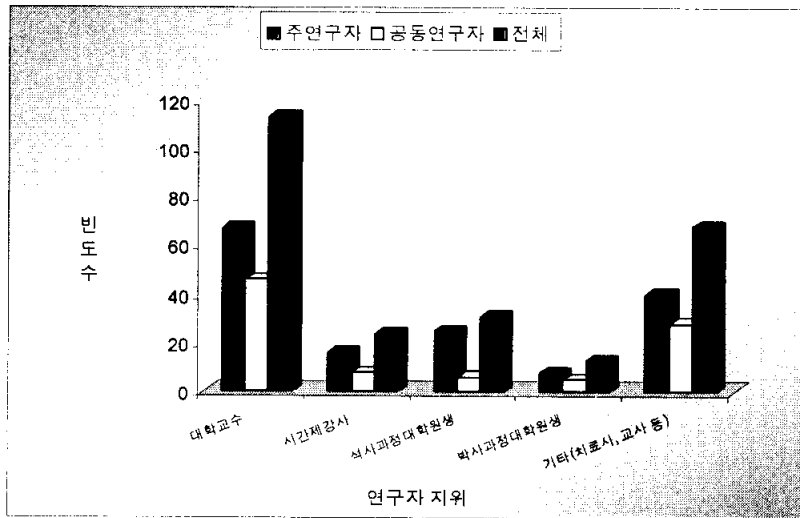
연구물들을 발표한 연구자들의 지위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156편의 논문들은 일인 단독 연구로 이루어진 논문이 63편, 2인 공동연구가 89편, 3인 공동연구가 4편이었다. 일인 단독 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43%가 대학교수이며 기타 연구자가 2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타 저자는 아동상담자와 놀이치료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유치원 및 학교 교사도 일부 포함되었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자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사실상 모두가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다.

공동 연구자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대학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였으며, 다음으로 아동상담자와 놀이치료사가 27%에 이

르렀다. 이들의 소속기관은 주로 상담관련 기관 및 연구소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 상담실 및 복지관 상담실, 각 대학 내 학생생활연구소 및 놀이치료실, 병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12%를 차지하며 시간제 강사(10%)와 박사과정 대학원생(5%)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회지 게재논문 연구내용 분석결과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평정지침서의 기준에 따라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2가지의 내용분류 유목 중 사례연구에 한해서는 중복표기를 허용했으므로 1차 분석에서는 사례자체의 독특성을 기술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순수한 사례연구만을 포함시켜 각 연구물이 한 가지 유목으로만 분류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한 1차 분석에서는 총 90편의 논문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살펴봤는데, 그 중 특정주제연구 및 개관연구가 전체 90편 중 30편(3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성격특성 및 적



[그림 2] 연구자 지위특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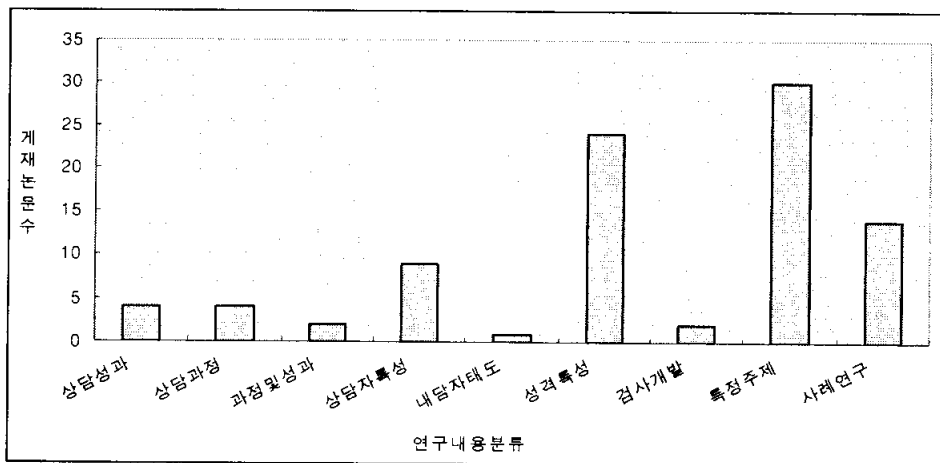
응연구가 총 24편(27%)에 해당되었고 사례연구가 14편 목이 전체 연구물의 75%를 차지하며 상담자 특성에 관련 (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주요 세 가지 연구내용 유 된 연구물 10%, 그 밖에 나머지 8가지 유목에 해당되는

<표 3> 연도별 연구내용

연도	연구내용 분류 유목									계
	상담성과	상담과정	과정/성과	상담자 특성	내담자 태도	성격특성	검사개발	특정주제	사례연구	
1997년	-	-	-	-	-	-	-	1	1	2
1998년	1	-	-	1	-	2	-	5	2	11
1999년	1	-	-	-	-	1	1	7	1	11
2000년	2	-	-	1	1	3	-	6	2	15
2001년	-	1	-	3	-	6	-	6	3	19
2002년	-	2	-	1	-	9	1	2	2	17
2003년	-	1	2	3	-	3	-	3	3	15
계	4(4.4)	4(4.4)	2(2.2)	9(10)	1(1.1)	24(26.7)	2(2.2)	30(33.3)	14(15.6)	90(100)

1) 괄호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2) 내용분류 중 ⑦ 진로 및 적성, ⑨ 연구방법론, ⑩ 이론개발은 해당 연구가 없으므로 생략하였음.



[그림 3] 연구내용 별 논문 수

연구물들은 전체 연구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목 연구물들을 모두 합쳐도 1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성과와 상담과정, 그리고 상담과정 및 성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물들이 10% 수준에 그치는데다, 검사 및 도구 개발연구는 전체 연구 중 2편(2.2%), 이론개발연구와 연구방법론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회지 연구물들의 연구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보다 상당히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분석에서는 1차 분석에서 제외시켰던 사례연구에 대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연구 중 46편(70%)이 상담성과를, 19편(29%)이 과정 및 성과를 기술하는 연구물이었다. 특히 과정 및 성과를 기술하는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조화된 상담개입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단일사례 혹은 소집단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표 4> 사례연구의 내용 분석

연구내용유목	사례연구	백분율(100%)
상담성과	46	69.7
상담과정	1	1.5
과정 및 성과	19	28.8
계	66	100.0

### 3. 사용된 측정도구의 분석 결과

측정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총 89편이며 89편에 사용된 총 측정도구의 수는 163개로 논문 당 평균 3개의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측정도구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서열척도가 97개(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명척도가 51개(31%), 이 두 유형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는 그 수가 미미하였다.

각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심리측정 속성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만을 제시한 경우는 4편(2.6%), 요인정보만을 제시한 경우는 20편(12.8%), 신뢰도와 요인정보를 제시한

<표 6> 심리측정정보 제시형태별 도구 수

심리측정정보 제시형태	도구수	백분율(%)
신뢰도 제시	4	2.6
요인정보 제시	20	12.8
신뢰도+요인정보 제시	44	28.2
신뢰도+준거타당도 제시	-	-
신뢰도+요인정보+준거타당도제시	1	.6
전혀 제시하지 않음	16	10.2
계	85	100

경우는 3편(1.8%)이었다. 한편, 신뢰도와 함께 준거타당도를 제시한 경우나 신뢰도와 함께 요인정보 및 준거타당도를 제시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 4. 피험자 분석 결과

156편의 연구물 가운데 피험자를 사용한 논문은 122편에 해당되며 피험자 수는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1329명, 편당 피험자 수는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 피험자와 남성 피험자를 사용한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평균 남성 피험자 수가 71명인 것에 비해 평균 여성 피험자 수는 88명으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사실상 여성 피험자에 해당되는 아동상담자 및 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인해 나타나는 격차로 추정된다.

피험자 선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거나 충분하게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연구물이 총 122편 중 82편(67%)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연구물이 36편(30%)정도 해당되었으며 전혀 제시하지 않은 연구물도 3편(3%)이 있었다.

피험자의 연령별 형태로는 전체 피험자 중 4-6세 아동을 피험자로 사용한 연구물이 39편(2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일반 성인을 피험자로 포함시킨 연구물이 각각 32편(20%),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사용한 연구물이 31편(19%)을 차지하였다.

피험자 지위특성별로 살펴보면 상담기관 내담자를 피험자로 포함시킨 연구물이 53편(42%), 일반 대상이 45편(35%), 아동상담자 및 치료사가 14편(11%)를 차지하였다.

<표 5> 사용된 측정도구 수와 유형별 현황

도구사용 논문 수	총 도구 수	도구 유형별 수(%)				논문당 도구 수 평균(SD)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89	163	51(31.3)	97(59.5)	14(8.6)	1(0.6)	3.38(1.11)

<표 7> 피험자 특성별 연구물 수, 범위 및 평균

피험자 정보	연구물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피험자 수
전체 피험자 수	122	1	1329	115.21
남자 피험자 수	78	1	869	71.14
여자 피험자 수	72	0	653	87.79

<표 8> 피험자 선발 정보 제시 논문 수

피험자 선발정보 제시의 충실성	논문 수 (%)
명확 또는 충분히 제시	82(67%)
불명확 또는 불충분 제시	37(30%)
전혀 제시하지 않음	3(3%)
계	122(100%)

<표 9> 피험자 연령별 논문 수

피험자 연령	빈도	백분율(%)
0-3세	13	8.0
4-6세	39	24.1
초등학교 저학년	32	19.8
초등학교 고학년	31	19.1
중학교	8	4.9
고등학교	4	2.5
대학교(대학원)	3	1.9
일반	32	19.8
계	162	100.0

1) 두 연령 이상의 피험자를 사용했을 경우 별도로 논문 수 계산에 포함시킴.

5.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 분석 결과

전체 논문 가운데 78편에서 통계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표 10> 피험자 지위특성별 논문 수

피험자 지위	빈도	백분율(%)
일반	45	35.4
상당기관 내담자	53	41.7
의료기관 내담자	6	4.7
상담, 치료사	14	11.0
비행청소년	2	1.6
기타(교사, 학대아동)	7	5.5
계	127	100.0

1) 두 지위특성 이상의 피험자 사용한 경우 별도로 논문 수 계산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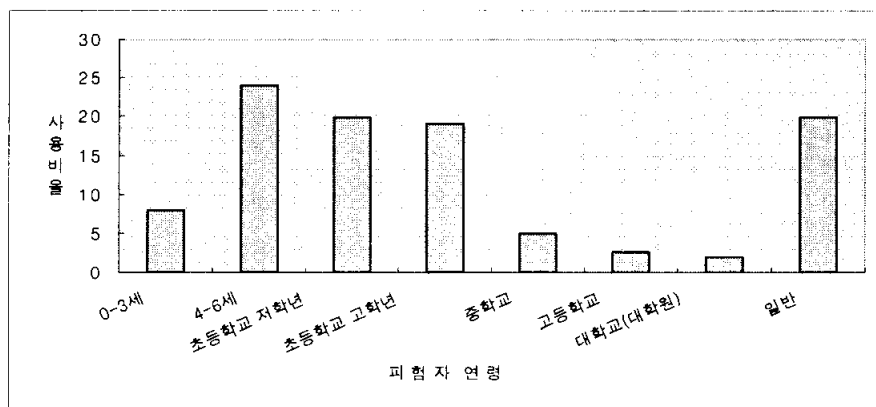
여기서 제외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주제 연구 및 개관 연구 혹은 사례연구로서 통계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78편의 논문 중 서로 다른 통계분석방법을 중복 사용한 논문들은 별도 논문으로 간주하여 총 115편이 산출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은 변량계열 통계방법이 차지하였다. 변량계열 통계방법은 t-검증, 변량분석(ANOVA),

<표 11> 통계분석 방법별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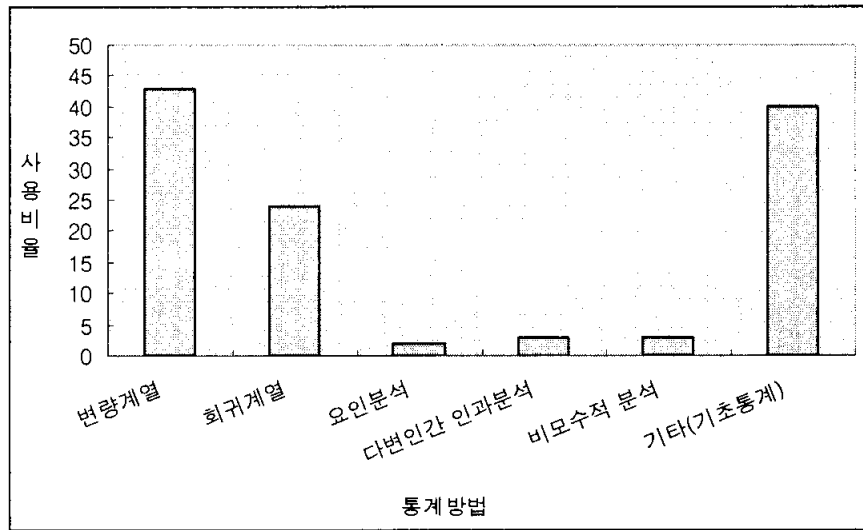
통계분석 방법	논문 수	백분율(%)
변량계열	43	37.4
회귀계열	24	20.9
요인분석	2	1.7
다변인간 인과분석	3	2.6
비모수적 분석	3	2.6
기타(기초통계)	40	34.8
계	115	100.0

1) 서로 다른 통계분석방법을 중복 사용한 논문들을 별도 논문으로 간주하여 산출함.



[그림 4] 피험자 연령 형태별 사용 비율





[그림 5] 통계분석 방법별 사용비율

다변량분석(MANOVA) 등이 포함되며 43편(37%)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즉 기초통계방법이 40편(35%)을 차지하였다. 본래 기초통계방법은 기초조사연구와 같이 연구문제로 제기된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한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세 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된 통계방법은 회귀계열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 등이 포함된다. 회귀계열은 24편(21%)에 사용되었으며 그 밖의 연구 방법들은 그 비율이 매우 저조하여 통계방법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6. 참고문헌 인용 분석 결과

각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46편의 연구물에 국내 논문들이 인용되었다. 국내 참고문헌은 최소 1편에서부터 최대 66편까지, 평균적으로 11편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연구물들의 발간 연도와 국내 참고문헌의 평균 연도간 차이는 6년 정도로, 바꿔 말하면 각 연구물들이 평균적으로 6년 이전에 발간된 국내 참고문헌을 인용했음을 나타낸다. 국외 참고문헌의 경우, 141편이 인용되었으며 아예 인용하지 않은 연구

물에서부터 최고 71편까지, 평균 17편이 인용되었다. 각 연구물의 발간 연도와 국외 참고문헌의 평균 연도 간 차이는 17년 정도로 국내 연구물들이 17년 정도 이전에 발간된 국외 참고문헌을 사용했음을 반영한다.

IV. 논의 및 결론

실제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많은 기관과 치료자가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놀이치료 임상현장의 확산과 더불어 학문적 성장, 경험적 검증 작업이 함께 균형을 맞춰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 놀이치료 관련 연구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양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와 함께 연구물들의 질적 수준과 발전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스스로 묻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놀이치료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156편의 연구물들을 연구내용, 측정도구, 피험자, 통계분석방법, 참고문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에 관련된 연구물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학교수와 현장에 있는 상담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내용들을 분류한 결과 성격특성 및 적용연구나 특정주제 연구 및 개관 연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상담 성과나 과정, 과정과 성과의 통합

<표 12> 논문별 참고문헌 인용 현황

참고문헌 정보 유형	국내 참고문헌	국외 참고문헌
논문 수	146	141
인용된 논문 수 평균	11.38	16.56
범위(편)	1-66	1-77
논문과의 연도 차(년)	5.94	17

연구들은 10%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 결과는 사례연구를 통한 상담성과, 상담과정, 상담과정 및 성과 연구를 배제시키고 분석한 결과임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차 분석에서 상담성과와 상담과정, 과정 및 성과연구는 실험연구 및 조사연구(양적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들만을 포함하며 사례연구는 순수 사례 기술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전체 분석에 모두 포함시켜 본다면 전체 연구 156편 중 40%(66편)가 상담 성과와 상담과정 및 성과를 다루는 사례연구에 해당된다.

이는 놀이치료 연구의 주제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정윤경, 2001) 국내 놀이치료 연구주제의 동향이 놀이치료 효과성(68%)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동시에 상담 과정 연구, 혹은 효과성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점 역시 선행연구와 의견을 같이 한다.

셋째, 검사 및 도구개발연구, 혹은 이론개발연구, 그리고 통계분석 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다룬 연구들은 사실상 전무하였다.

정윤경(2001)의 연구에서 놀이치료 이론에 대한 연구가 1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 특정 주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해당되며 새로운 개념적 틀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이론개발 연구는 아직까지 소개된 바가 없다.

넷째, 사용된 측정 도구는 주로 서열척도와 명명척도가 지배적이었다. 측정도구는 연구방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바, 연구방법에서도 변량계열 연구방법과 주로 기초통계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험자의 보고를 기초로 한 질문지 혹은 행동관찰 등을 통해 측정되고 자료가 수집된 연구물들이 많았음을 반영하며 따라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제약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피험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담기관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연령별로 볼 때 4-6세 사이의 아동과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을 피험자로 사용한 연구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연구자들의 지위특성별 분석과, 내용분류별 분석 결과들과 종합하여 볼 때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일반 대학교수와 상담자 및 치료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피험자 역시 일반인과 상담기관 내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영역을 보다 예방적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초기 발달단계에 있는 0-3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겠다.

그 밖에 참고문헌 인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참고

문헌에 비해 국외 참고문헌이 양적으로 많았으나 국내 참고문헌이 평균 6년 전 발간된 문헌을 인용한 반면 국외 참고문헌은 17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과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 문헌의 접근용이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7년이란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외 참고문헌의 경우 비교적 고전적 이론서에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최신 연구물들에 대한 검토가 빈약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회지에 게재된 국내 놀이치료 연구물들의 연구내용들이 편중된 경향성을 보이는 것, 특히 연구의 양적인 증가추세는 배가되고 있으나 내용의 편중된 경향성은 좀처럼 균형 있게 확장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 중 하나로,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영역의 학문적 역사가 짧다는 점,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제 막 확장시켜 나가려는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아동 피험자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험자 특성상 자기 인식과 자기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점, 피험자로서의 자발적 동기가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 자아기능과 자기 보호 능력이 아직 취약하므로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치료자의 윤리적 문제가 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다.

둘째, 놀이치료 성과나 과정 등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본연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상담 성과와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개발과 체계적인 측정방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조성호(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담과정연구는 상담 개입의 궁극적인 효과나 성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상담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상담 효과의 원인을 상담과정에서 규명하려 하는 것으로서, 상담 연구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러한 치료적 기제를 검증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담의 효과와 성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새로운 이론개발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영역이 과학적 학문 영역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치료적 기법과 개입방법이 객관적 평가

와 검증 없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필연적이며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에 대한 일반인과 내담자들의 인식과 기대 등의 조사연구와 비교 문화적 논점의 연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가 도입되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소화해 가는 과정에서 일반인, 내담자, 교사, 상담자 및 치료사가 갖는 놀이치료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의 조사는 단순한 기초조사를 넘어서 우리문화 내에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의 욕구에 걸맞게 한국적인 아동상담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놀이치료 연구물들 가운데 주요 놀이치료 학회지 두 곳의 게재논문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놀이치료 연구의 국내 동향을 포괄한다고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영역이 보다 더 내실을 기해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놀이치료가 빌려온 학문을 넘어서 우리의 몸체에 걸맞는 주체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들의 탄생을 기대한다.

**주제어** : 연구동향, 내용분석, 놀이치료

## 참 고 문 헌

- 김광웅(1999). 아동놀이의 속성과 치료적 요소에 관한 고찰. *놀이치료연구*, 2, pp. 49-57
- 박관주(1992). 방임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미숙(1997).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상조사.
- 정윤경(2001). 국·내외 놀이치료 연구동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 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5(4), p811-832.
- Brown, F. G. (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8, 263-272.
- Buboltz, W.C. Jr., Miller, M. & Williams, D. J.(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4, 496-503.
- Freud, A.(1946).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children*. London: Imazo.
- Klein, M.(1932). *Psychoanalysis of children*. London: Hogarth Press.
- O'Connor, K.(1991). *The Play Therapy Primer: An integration of theories and techniqu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Rogers, C.(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Hughton Mifflin.

(2005. 12. 31 접수; 2005. 02. 11 채택)